

[2026] 한주간 쉽게 보는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

Jeju News Keyword Trends

No. 78



Contents

※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대상 기간 : 2026.02.05~2026.02.11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정치·행정 1
- 경제·관광 2
- 지역·사회 2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3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7
- 지역·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11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

○ 제주지역 ①정치·행정, ②경제·관광, ③지역·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

분야	주요 키워드
정치·행정	버스(노선), 평가, 단계, 청년, 책임
경제·관광	가격(상승), 명절, 청년, 자금, 소상공인
지역·사회	명절, 도로, 차량, 연구, 연휴

※ 분석 기간 : 26.02.05.~26.02.11

대상 언론사 :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정치·행정	버스(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 혼잡 해소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버스 노선 보완 대책 추진 - 서광로 BRT 안정화 및 동광로 구간 확대 도입 계획 발표 - 전세버스 등록 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의 제동 및 우려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선거를 앞둔 현역 의원 성과 평가 및 공천 배제 가능성 - 제주도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및 업무 추진 능력 평가 중시 -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논란 및 심의 절차 강화 요구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투입 및 노선 조정을 위한 3단계 보완 대책 시행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2단계 속의 공론화 절차 - 가로수 관리 체계 혁신을 위한 서귀포형 실명제 단계적 확대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된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 제주청년센터장 채용의 공정성 논란 및 제도적 보완 요구 - 청년 인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 설립 제안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의 공공 부문 사용자 책임 강화 및 직접 교섭 요구 - 제주신항 건설을 둘러싼 해수부와 제주도의 관리권 책임 공방 - 제주4·3 학살 책임자 논란 및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정부 책임 촉구

○ (경제·관광 분야) 주요 보도 내용

경제·관광	가격(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 차례상 비용 안정세 속 일부 품목 급등 - 만감류 및 월동채소 가격 방어 총력 - 아파트 경매 유찰 및 입주 전망 상승
	명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 연휴 관광객 24만 명 방문 전망 - 공항 특별교통대책 및 편의 제공 - 지역사회 나눔과 물가 안정 노력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고용 부진 및 인구 유출 심화 - 청년 역량 강화 및 채용 프로그램 - 금융 및 자립 지원 정책 확대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설 자금난 및 지원 대책 - 민생 활력 특별 보증 및 금융 협약 - 농어업 및 수출 기업 금융 지원
	소상공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부담 완화 및 특별 보증 -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 경영 환경 개선 및 안전망 구축

○ (지역·사회 분야) 주요 보도 내용

지역·사회	명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체불 현황 및 해소 대책 추진 - 설 명절 특별 치안 및 안전 활동 - 만감류 소비 촉진 및 물가 안정
	도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설·결빙에 따른 도로 통제 및 제설 - 버스전용차로 공사 및 교통 혼잡 논란 - 제설제 잔여물 세척 및 가로수 보호
	차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길 차량 연쇄 추돌 및 안전사고 - 선박 내 화물차량 화재 사고 -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습지의 철새 보전 가치 규명 - 제주산 만감류 소비자 선호도 조사 - 노인 여가복지 향상 공동 연구
	연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이용객 대상 응급처치 교육 - 주정차 단속 유예 및 주차장 개방 - 항만 및 공항 특별 수송 대책

2 분야별 뉴스 Word Cloud

- 2026년 월 5일~2월 11일 기간, 정치·행정, 경제·관광, 지역·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908건임
 - 정치·행정 분야 42건, 경제·관광 195건, 지역·사회 311건임
 - * 대상 언론사: 한라일보, 제주일보, 제주매일, 제민일보, 삼다일보, 제주의소리, 헤드라인제주
- 정치·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버스(노선), 평가, 단계, 청년, 책임 등으로 나타남



[그림 1] 정치·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정치·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정치·행정	버스 (노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심 혼잡 해소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버스 노선 보완 대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8월 노선 개편 이후 이용 실태를 분석하여 25개 노선을 조정하고 총 26대의 버스를 단계적으로 투입함. 예비 버스 6대를 우선 투입해 13개 노선 운행 횟수를 늘리고, 통학 및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을 촘촘히 하여 도민 불편을 해소함. · 노형·연동에서 공항을 거쳐 함덕까지 운행하는 도심급행 노선(8대)과 연삼로를 통해 봉개동으로 가는 노선(2대)을 신설함. 또한 이용자가 적은 수요맞춤형 노선을 정규 노선으로 통합하여 운행 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대
-------	------------	--

	<p style="text-align: center;">버스 (노선)</p>	<p>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광로 BRT 안정화 및 동광로 구간 확대 도입 계획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서광로 BRT 구간의 정시성과 수용량이 향상되었다고 판단하여 오는 6월부터 동광로 구간까지 사업을 확대하기로 함. 섬식 정류장 6곳 설치와 양문형 버스 도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혁신하고 2028년까지 총 31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함. · BRT 개통 이후 제기된 우회전 차량과의 접촉 사고 위험 및 차선 혼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용 차로 도입과 신호 주기 조정을 실시함. 도의회는 설계 변경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지적하며 안정적인 정책 추진과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안전 확보를 강력히 주문함. - 전세버스 등록 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도의회의 제동 및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 등록 기준을 20대에서 10대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나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미반영됨. 도의회는 등록 기준이 낮아질 경우 영세 업체 난립, 노후 차량 유입, 과당 경쟁으로 인해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 질이 하락할 것을 우려함. · 국토부 법 개정에 따른 전국적 추세에도 불구하고 제주 실정에 맞는 안전 관리와 시장 질서 유지가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함. 특히 안전관리 직원 채용 의무가 사라지는 10대 미만 기준은 도민과 관광객의 이동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명시함.
<p style="text-align: center;">정치·행정</p>	<p style="text-align: center;">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선거를 앞둔 현역 의원 성과 평가 및 공천 배제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주당 제주도당 선출직평가위원회는 현직 도의원 27명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률과 의정 활동 성과를 평가함.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 5명에게는 공천 심사 시 감점을 적용하기로 하여 인적 쇄신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후보 선출 프로세스를 가동함. ·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위원회는 당적, 범죄 경력, 허위 기재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신청자 72명 중 70명을 적격 판정함.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일꾼을 뽑기 위해 각계각층 전문성을 가진 위원으로 공관위를 구성하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상향식 공천 원칙을 고수함. - 제주도지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및 업무 추진 능력 평가 중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4사 여론조사 결과, 차기 도지사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업무 추진 능력(24.2%)'이 꼽혔으며 행정 경험과 리더십이 뒤를 이음. 이는 도민들이 단순한 정당 배경보다 실질적인 정책 집행 역량과 지역 현안 해결 능력을 인물 평가의 핵심 지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줌. · 민주당 후보 적합도에서는 문대림 의원과 오영훈 지사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으며 국힘은 절대 강자 없는 정체 국면임. 유보층이 두 자릿수로 나타나 향후 후보들의 정책 비전과 행정 성과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최종 선거 구도를 결정짓는 결정적 변수가 될 전망이다. -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논란 및 심의 절차 강화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인 애월포레스트 등의 과정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단기간에 마무리된 점을 두고 평가의 신뢰성에 대한 질타가 이어짐. 도의회

정치·행정	평가	<p>는 오수 처리량 등 핵심 수치가 평가 단계마다 크게 변동하는 사례를 지적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개정을 촉구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감한 사안이 서면 심의로 처리되는 관행을 비판하며 주민 수용성과 환경보전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평가 프로세스를 개선해야 함. 단순한 법적 절차 이행을 넘어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엄격한 심의 기준 마련이 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의 핵심 과제로 부각됨.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버스 투입 및 노선 조정을 위한 3단계 보완 대책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단계로 2월 중순부터 예비 버스 6대를 투입해 통학 노선 배차를 늘리고, 2단계인 4월에는 신규 차량 14대를 확보해 도심 급행 노선을 신설함. 연말 3단계에서는 고상 양문형 버스 6대를 추가 도입하여 상시 혼잡 구간을 해소하는 등 이용자 민원을 반영한 체계적 단계별 증차를 추진함. · 단계별 시행 전 읍면동을 통해 미리 정보를 안내하고 시행 후 20일간 집중 모니터링을 거쳐 불편 사항을 세밀하게 보완함. 정규 노선 중심으로 운행 체계를 효율화하여 도민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는 단계적 정책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음. -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2단계 속의 공론화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갈등 해결을 위해 1단계 '의제 속의 워크숍'을 통해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대안 시나리오를 도출함. 이후 2단계인 '100인 시민참여단 원탁회의'에서 도민들이 숙의하여 최종 결론을 내리도록 설계함으로써 찬반 대립을 넘어선 민주적 합의 도출의 발판을 마련함. · 공론화 추진단은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시각을 반영하여 공정성을 확보함. 이번 절차는 서귀포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대안을 함께 만드는 과정으로, 도출된 정책 권고안은 향후 도로 건설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 가로수 관리 체계 혁신을 위한 서귀포형 실명제 단계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귀포시는 중앙로 1.3km 구간을 대상으로 각 나무에 고유번호와 QR코드를 부여하는 '가로수 실명제'를 시범 실시함. 이를 통해 수종과 관리 이력을 시민이 직접 확인하는 참여형 모델을 구축하고, 2026년 시범 운영 결과를 분석한 뒤 시 전역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임. · 병해충 피해나 고사목 발생을 실시간 파악하여 대응 속도를 높이고 중복 점검을 줄여 예산 절감 효과를 도모함. 단순한 행정 관리를 넘어 인근 상인을 관리 주체로 모집하는 등 민관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녹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자 함.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치된 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동 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5년 이상 무상 임대받아 리모델링 후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함. 채당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창호, 도배, 장판 등 공사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주거 모델임. · 이 사업은 주거 안정뿐만 아니라 생활 인구 유입을 통해 도심 공동화 문제를

정치·행정	청년	<p>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목표로 함. 리모 델링이 완료된 주택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터전으로 활용되며, 임대 기간 종료 후에는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구조임.</p> <p>- 제주청년센터장 채용의 공정성 논란 및 제도적 보완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의회 행사위에서 2024년 청년센터장 채용 당시 인정하기 어려운 민간 경 력이 포함된 인사를 선발한 점을 두고 불공정 채용 의혹을 제기함. 청년들에 게 '줄만 잘 서면 된다'는 상실감을 심어주었다는 비판과 함께 채용 기준의 투명성과 인사권 남용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함. · 행정은 당시 공고의 구체성 부족을 해명하며 올해부터 건강보험자격 득실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하도록 채용 절차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힘. 청년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센터장 자리가 정치적 보은 인사가 아닌 실력 중심의 공정하 경쟁 장이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음. <p>- 청년 인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 설립 제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성곤 의원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악순환을 끊기 위 해 일본 오키나와 모델을 벤치마킹한 JIST 설립을 건의함. 파격적인 예산 지 원과 학과 간 장벽 없는 융합 연구를 통해 청년 인재들이 정주할 수 있는 글 로벌 수준의 교육 및 연구 인프라 구축이 핵심임. · 관광과 1차 산업에 편중된 구조를 넘어 신산업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청년들 에게 다양한 진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연구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의료, 교육 특례를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견인하려는 전략임.
	책임	<p>- 지방정부의 공공 부문 사용자 책임 강화 및 직접 교섭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보당 제주도당은 노조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제주도가 공공 위탁 사업 및 출자·출연 기관 노동자들에 대해 모범적인 사용자 책임을 다할 것을 선언함. 간접 고용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 안정을 위해 지방정부가 직접 교섭 테이 블에 나서 구조적 열악함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는 저임금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제주에서 공공 부문이 선제적으로 노사 관계의 기준을 세워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조치임. 실질적인 영향 력을 행사하는 원청으로서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민 노동자들의 권익 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p>- 제주신항 건설을 둘러싼 해수부와 제주도의 관리권 책임 공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수부는 2조 원 규모의 신항 건설 지원 조건으로 제주항 관리권을 정부로 이양할 것을 요구하며 전국 항만 정책의 효율적 관리를 명분으로 내세움. 반 면 제주도는 관리권 이양이 지방 분권 정신에 역행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항만 정책 수립을 어렵게 한다며 강력히 반발함. · 제주항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이양된 권한인 만큼, 이를 반납할 경우 제주의 자치권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입장임. 대규모 국비 확보라는 실익과 항만 자치권 수호라는 명분 사이에서 정부의 추가 인센티브 없이는 수용 불가하다는 배수진을 치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음. <p>- 제주4·3 학살 책임자 논란 및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정부 책임 촉구</p>

정치·행정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4·3 당시 양민 학살 책임이 있는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시도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요구가 나옴. 역사적 과오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희생자 보상금의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은 국가 폭력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책무임. · 4·3 희생자 보상금 심사 인력을 확충하고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외 청구권자들에게 누락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함.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과거사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 명예 회복을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 시스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임.
-------	----	---

○ 경제·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 주요 키워드는 가격(상승), 명절, 청년, 자금, 소상공인 등으로 나타남



[그림 2] 경제·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

○ 경제·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경제·관광	가격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 차례상 비용 안정세 속 일부 품목 급등 · 설 명절 차례상 비용은 과일류 가격 하락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애호박과 가래떡 등 일부 채소 및 가공식품 가격은 크게 올라 체감 물가 부담이 여전함. 특히 떡류와 옥돔 등 제수용 필수 품목의 상승세가 두드러져 소비자의 현명한 분산 구매 전략이 요구됨. · 제주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4인 가족 기준 비용은 33만 원대로 집계됐으며, 과일류는 하락세를 보인 반면 채소류와 육류는 상승세를 기록함. 유통 전문가들은 명절이 임박할수록 수요 집중 품목의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가공식품과 건어물 등의 조기 구매를 권장함.
-------	------------	---

	<p>가격 (상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감류 및 월동채소 가격 방어 총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산 만감류와 월동채소 생산량 증가 및 소비 둔화로 가격 하락 우려가 커짐에 따라, 농협과 행정 당국은 비파괴 선별기를 통한 고품질 출하와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전개함. 특히 미국산 만다린 수입에 대응해 완숙과 위주의 선별 출하로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 월동무와 당근 등 월동채소의 경우 시장 격리 및 가공용 출하 등 품위별 처리 대책을 마련해 가격 지지를 추진함. 수급 불안 시 정부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소비지 마케팅을 강화하여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있음. - 아파트 경매 유찰 및 입주 전망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아파트 경매 시장은 고금리와 부동산 침체 여파로 1월 진행된 건수가 모두 유찰되며 매수 심리가 위축된 모습을 보임. 반면 전국적으로는 낙찰가율이 상승하는 등 회복세를 보여, 제주 지역만의 거래 절벽 현상이 두드러지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입주전망지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과 미분양 해소 기대감으로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함. 그러나 실제 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정책 효과가 실물 경기에 반영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p>경제·관광</p>	<p>명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 연휴 관광객 24만 명 방문 전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항공편과 선박을 이용해 약 24만 5천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년 대비 약 6% 증가한 수치임. 특히 국제선 항공편 운항이 대폭 늘어나면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증가해 지역 관광업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음. · 제주도와 관광협회는 공항과 항만에서 입도객 환영 행사를 개최하고, 안전한 여행 환경 조성을 위해 카지노 등 주요 관광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함. 연휴 기간 동안 관광객들의 체류 시간과 소비 지출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과 프로모션도 함께 진행됨. - 공항 특별교통대책 및 편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공항은 설 연휴 기간 동안 특별교통대책반을 운영하여 항공기 운항을 증편하고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 점검을 완료함. 혼잡 완화를 위해 신분 확인대와 체크인 카운터를 조기 개장하고 임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수송 지원에 만전을 기함. · 가족 단위 이용객을 위한 문화 행사와 팝업 스토어 운영 등으로 공항 이용 만족도를 높이고, 기상 악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체계를 구축함.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이용객이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안전 관리 인력을 확충하고 현장 대응 태세를 강화함. - 지역사회 나눔과 물가 안정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을 맞아 제주은행과 지역 기업들은 헌혈 캠페인과 기부 활동을 통해 소외된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는 나눔 문화를 실천함. 김만덕의 나눔 정신을 계승한 증류주 출시와 판매 수익금 기부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의 활동이 명절의 의미를 더하고 있음.

경제·관광	명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전통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통해 제수용품 구매 비용을 줄이고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있음. 아울러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지도를 강화해 근로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음.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고용 부진 및 인구 유출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 지역 청년층 취업자 수는 관광 경기 둔화와 서비스업 부진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구직을 단념하는 비중이 늘어남. 임금 수준 또한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 기반이 약화되고 고용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음. · 청년 인구의 순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지역 소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2030세대의 탈제주 현상이 두드러짐. 전문가들은 관광 산업 위주의 일자리 구조를 개편하고 신산업 육성을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언함. - 청년 역량 강화 및 채용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더큰내일센터는 혁신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해커톤 방식의 면접 전형인 '넥스톤'을 도입해 청년들의 실무 역량을 검증함. 참여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며 협업과 소통 능력을 키우고, 지역 사회의 리더로 성장할 기회를 얻음. · 한국마사회 제주본부는 방송, 고객 편익 등 다양한 직무에서 경마지원직을 공개 채용하며 지역 청년들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 선발된 인원에게는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 청년들의 경력 개발을 도움. - 금융 및 자립 지원 정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들을 위해 희망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금융 부담 완화에 나서고 있음. 또한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금융기관과 협력해 교육비와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함.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과 중장년층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재형저축 사업 참여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지원금을 확대함. 이는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있음.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설 자금난 및 지원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내 중소기업 대다수가 판매 부진과 대금 회수 지연으로 인해 설 명절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높은 대출 금리와 담보 부족 등으로 금융권 차입마저 쉽지 않아, 경영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자금 지원과 금융 비용 부담 완화 대책이 절실한 상황임. · 이에 대응해 제주신용보증재단은 특별 보증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현장 상담실을 운영해 자금 신청 편의를 제공함. 지자체와 금융기관은 협력을 통해 저금리 융자 지원과 상환 유예 등을 추진하며 기업들의 자금 숨통을 트이게 하고 있음. - 민생 활력 특별 보증 및 금융 협약

	<p>자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와 농협은행, 신용보증재단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120억 원 규모의 특별 보증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원함.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한도를 상향하고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자금 조달을 돕고 경영 위기 극복을 뒷받침함. · 경영안정자금의 상환 방식을 개선하여 일시 상환 부담을 줄이고 분할 상환이나 기간 연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함. 이는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금 운용의 안정성을 높여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p>- 농어업 및 수출 기업 금융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과 행정 당국은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 자조금을 활용한 시장 격리와 수매 비촉 사업을 추진하며 농가 소득 보전에 나섬.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는 정책 자금을 지원하고, 판로 확대를 위한 마케팅 비용을 보조해 농업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음. · 수출 기업의 경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환 변동 보험과 신용 보증 가입비를 지원함. 이는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도내 기업들이 안심하고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안전 장치가 되며, 수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짐.
<p>경제·관광</p>	<p>소상공인</p>	<p>- 금융 부담 완화 및 특별 보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제주도와 유관 기관은 대규모 특별 보증 재원을 마련하고 저금리 용자를 지원함. 신용 등급이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상인들에게도 금융 접근성을 높여, 긴급 경영 자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 찾아가는 보증 상담 서비스와 비대면 자동 심사 시스템을 도입해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쉽고 빠르게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함.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캠페인과 금융 교육을 병행해 소상공인들의 건전한 금융 생활을 지원하고 있음. <p>-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배달앱 '먹깨비'와 지역 화폐 '탐나는전'을 연계한 할인 이벤트와페이백 혜택을 제공해 소상공인 매장 이용을 유도함. 이는 대형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여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상생 모델로 평가받음. ·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와 할인 축제를 개최해 소비자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음. 로컬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고,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함. <p>- 경영 환경 개선 및 안전망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연합회는 풍수해 및 화재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 매장 방역과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소상공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 맞춤형 경영 컨설팅 사업을 통해 마케팅, 세무, 노무 등 전문 분야의 자문을

지역·사회	명절	<p>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18일까지를 특별 치안 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공항과 전통시장 등 인파 밀집 지역에 기동대와 특공대를 전진 배치하여 가시적인 순찰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범죄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고 평온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소방안전본부는 명절 기간 음식물 조리과 난방기기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주거 시설에 대한 화재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24시간 특별 경계 근무 체계를 운영하여 화재 및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함. <p>- 만감류 소비 촉진 및 물가 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설 대목을 맞아 한라봉, 천혜향 등 만감류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 사업 대상에 감귤을 포함시켜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성을 확대하고 대대적인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진행하여 시장 격리 효과와 함께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음. · 만감류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여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민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 비상품 감귤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으며, 지역 농협에 수급 안정 사업비를 지원하여 산지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수급 조절 정책을 통해 최근 만감류 가격이 전월 대비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
	도로	<p>- 폭설·결빙에 따른 도로 통제 및 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적인 폭설과 강풍으로 인해 1100도로와 5·16도로 등 주요 산간 도로의 차량 운행이 전면 통제되거나 월동장구를 갖춘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등 교통 차질이 빚어졌으며, 도로 결빙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경찰과 유관 기관이 주요 통제 구간에 인력을 배치하여 차량 우회 유도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함. · 제설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중산간 마을 안길과 좁은 골목길, 경사로 등 제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 인력이 대거 투입되어 직접 눈을 치우고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등 적극적인 제설 작업을 펼쳤으며,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다수 거주하는 마을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함. <p>- 버스전용차로 공사 및 교통 혼잡 논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서광로 일대에서 진행 중인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공사로 인해 일반 차량의 차로가 축소되면서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 체증이 반복되고 있어 운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잦은 차선 변경과 병목 현상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까지 제기되는 등 교통 흐름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제주도는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등 보완 공사를 통해 교통 흐름이 일부 개선되었으며 버스와 일반 차량의 평균 통행 속도가 향상되었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으나, 섬식 정류장 구조적 특성상 버스와 일

	도로	<p>반 차량의 동선 겹침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시설 보안을 통해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힘.</p> <p>- 제설제 잔여물 세척 및 가로수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설 대응 과정에서 도로에 살포된 염화칼슘 등 제설제가 가로수와 식재지의 토양에 스며들어 식물 고사 등 생육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제주시는 1100로와 연신로 등 주요 도로변의 관목류를 대상으로 고압 살수차 등을 동원한 긴급 염분 세척 작업을 실시하여 제설제 잔여물을 씻어내고 토양 오염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함. · 이번 세척 작업은 제설제가 집중적으로 사용된 도심과 중산간 진입로 구간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도로변 화단과 가로수의 염분 농도를 낮춤으로써 봄철 식물의 정상적인 성장을 돕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에도 제설 작업 이후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도시 생태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지역·사회	차량	<p>- 눈길 차량 연쇄 추돌 및 안전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인근 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들이 잇따라 부딪히며 11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일대 교통이 마비되었으며, 평화로와 산록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서도 차량 미끄러짐으로 인한 추돌 사고가 속출해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 수습과 추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에 나섬. · 지난해 우도 천진항에서 발생한 승합차 돌진 사고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등을 통해 운전자가 충돌 직전까지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을 확인하고 페달 오조작에 의한 과실 사고로 결론 내려 운전자를 구속 기소하고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함. <p>- 선박 내 화물차량 화재 사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항을 출항해 목포로 향하던 화물선 내부 화물칸에서 적재된 화물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선박이 긴급 회항했으며, 선내 자동 화재경보 시스템 작동과 선원들의 신속한 초기 대응, 해경 및 소방당국의 합동 진화 작전으로 화물차 3대가 전소되는 피해에 그치고 대형 선박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음. · 화재 당시 선박에는 승객과 선원 등 28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나 신속한 대피 유도과 대응으로 승객 2~4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경미한 피해 외에 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화재가 진압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정밀 조사에 착수함. <p>-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도민들의 친환경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자를 모집, 주행거리를 감축한 차량 소유주에게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며 올해는 참여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지원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차량은 제외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선착순 모집 방식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여 에너지 절약과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누릴 것을 권장함.
지역·사회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습지의 철새 보전 가치 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대학교 오홍식 교수 연구팀이 장기간의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고 있는 멸종위기 도요·물떼새류가 국내 연안습지를 대안 서식지이자 중간 기착지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특히 봄과 가을 이동 시기에 국내 습지를 찾는 철새 개체 수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함. · 해당 연구 결과는 국제 저명 학술지에 게재되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주변 국가의 서식지 파괴로 인해 갈 곳을 잃은 철새들에게 한국의 연안습지가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함에 따라, 향후 습지 보전 정책 수립과 국제적 협력을 통한 철새 보호 전략 마련에 중요한 과학적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 제주산 만감류 소비자 선호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주산 만감류(레드향, 달코미)와 미국산 만다린의 품질을 비교 평가한 결과, 맛과 향, 식감 등 전반적인 항목에서 제주산이 월등히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재구매 의향에서도 제주산 만감류가 압도적인 선택을 받아 수입 개방 파고 속에서도 품질 경쟁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입증함. · 소비자들은 제주산 만감류를 프리미엄 과일로 인식하고 있으며, 미국산 만다린보다 가격이 30% 정도 비싸더라도 맛과 품질이 뛰어난 제주산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가격보다는 '맛'이 구매 결정의 핵심 요인임이 확인됨에 따라 고품질 생산 기술 보급과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마케팅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분석됨. - 노인 여가복지 향상 공동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와 대한노인회 제주연합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여가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발굴과 노인 여가 프로그램 개발 등 고령 친화적 지역 사회 조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함. · 연구진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하여 배식 봉사 등 현장 활동에 참여하며 어르신들의 애로사항과 욕구를 파악하는 '지역사회 상생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현장 밀착형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효성 있고 체감도 높은 노인 복지 정책을 제안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방침임.
	연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항 이용객 대상 응급처치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설 연휴를 맞아 제주국제공항 3층에 체험 부스를 마련하고, 귀성객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CPR)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며, 전문 의용소방대원과 소방관이 직접 지도

지역·사회	연휴	<p>하는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해 누구나 위급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교육은 '심폐소생술은 기적이 아닌 용기'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공항을 이용하는 방문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되어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소방 당국은 명절 연휴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p>- 주정차 단속 유예 및 주차장 개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시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과 일반 구역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등 탄력적인 교통 행정을 펼치되,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공항 주변과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지하여 교통 흐름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함. · 단속 유예 기간이라 하더라도 소화전 주변,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에 대해서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 신고제가 정상 운영되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며, 교통 흐름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연휴 기간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임. <p>- 항만 및 공항 특별 수송 대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는 설 연휴 기간 여객선 이용객이 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항에 특별 수송 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근무 체제에 돌입하여 여객선 운항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한편,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전 안전 점검을 완료하여 귀성객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제주를 오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함. · 제주공항 또한 특별 교통 대책반을 가동하여 혼잡 시간대 인력 추가 배치, 임시 주차장 확보 등 공항 이용 편의를 높이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상 악화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체류객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정비하고 대중교통 연장 운행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연휴 기간 원활한 수송을 지원할 계획임.
-------	----	--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전략실)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